

오순절 후 열두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2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8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강석 장로

| | | |
|-----------------------------|--|--------|
| *입례 찬양 Opening Hymn |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 다같이 |
|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
| *찬 송 Hymn | 35 장 “큰 영화로신 주” (통일 50) | 다같이 |
|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 35 번 시편 84 편 | 다같이 |
|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 | 다같이 |
|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 | 인도자 |
| *송 영 Gloria Patri |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 다같이 |
|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 | 다같이 |
|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 | 김재우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베드로전서(1 Peter) 4:7-11 | 염신철 집사 |
| 찬 양 Anthem | “주님 품에” | 찬양대 |
| 설 교 Sermon | “마지막 때와 우리의 신앙” (The End of All Things & Our Faith) | 정재홍 목사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 |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 | 다같이 |
| *송 영 Doxology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 다같이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 | 다같이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 | 인도자 |
| *찬 송 Hymn | 420 장 “너 성결키 위해” (통일 212) | 다같이 |
| *축 도 Benediction | | 정재홍 목사 |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보다는,

세상의 그릇된 욕망을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믿음과 삶이 하나되는

신실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6:19,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개역개정 **벰전4:7-8**)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 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NIV **1 Peter 4:7-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 날짜 | 8/28 (주일) | 8/29 (월) | 8/30 (화) | 8/31 (수) | 9/1 (목) | 9/2 (금) | 9/3 (토) |
|----|--------------|-------------|-------------|-------------|------------|------------|------------|
| | 삼상20 | 삼상21,22 | 삼상23 | 삼상24 | 삼상25 | 삼상26 | 삼상27 |
| 본문 | 고전2 | 고전3 | 고전4 | 고전5 | 고전6 | 고전7 | 고전8 |
| | 애5 | 겔1 | 겔2 | 겔3 | 겔4 | 겔5 | 겔6 |
| | 시36 | 시37 | 시38 | 시39 | 시40,41 | 시42,43 | 시44 |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 | |
|------------------------|--------|
| 수요 찬양집회 (8/31수 오후7:30) | 김강석 장로 |
| 토요 새벽기도회(9/3토 오전6:30) | 김재우 장로 |

지난 주일(8/21)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4)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출 12:37-51)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힘겹게 종살이하던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여인과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무려) 60만명에 이르렀고, 그 외에 수많은 잡족(Different Ethnic Group)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했다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전혀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출애굽)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출애굽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출애굽의 메시지는 1)첫째, 라암셋에서 '숙곳'으로... 즉,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인' 라암셋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숙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고, 2)둘째, '잡족'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즉,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거룩한 신적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가신다는 라는 사실이며, 3)셋째는, '할례(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증표(예수의 흔적)'가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출애굽(곧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매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